

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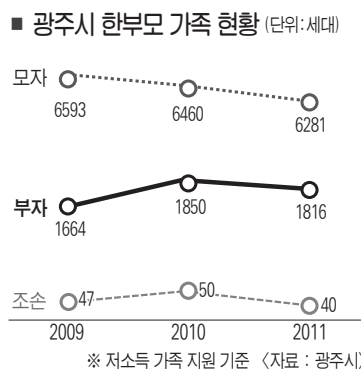
# 광주 '싱글맘' 줄고 '싱글대디' 늘었다

## 2년새 모자가정 312세대 ↓ 부자가정 152세대 ↑ 자녀양육·살림 등 상대적 소홀... 자립지원 필요

3년 전 이혼한 김호성(37·가명·광주시 북구 건국동)씨는 두 아이를 홀로 기르는 '싱글대디'다.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 유치원에 다니는 딸(7)과 셋이서 작은 빌라에 산다. 인근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야근을 해야 한다. 밤샘 작업을 하는 날에는 아이들을 지인의 집에 맡긴다. 담양에 사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교육문제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 관망했다. 아버지와 아이들로 구성된 부자(父子)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싱글대디'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보편화됐지만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은 여전하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2009년 8304세대→2010년 8369세대→2011년 8137세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자가정은 6593세대→6460세대→6281세대로 감소했지만 부자가정은 1664세대→1850세대→1816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표 참조> 이러한 수치는 광공사에서 지원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외에 지원을 받지 않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자가정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맡는 가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져서 가출하거나 이혼

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무조건 여성이 아이를 맡았지만 최근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양육비와 학비 등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00~130% 구간의 차상위계층 중 자녀 양육을 맡은 세대로 양육비와 학비, 주거공간, 교통비·학용품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자녀양육, 살림 등 비경제적 지원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모(35·광산구 신항동)씨는 "오죽했으면 엄마가 도망갔을까



라는 오해와 편견에 시달린다"면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 놓고 맡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센터의 한 관계자는 "부자가정은 주변센터 말고는 마음 편히 상담할 곳조차 없다"며 "남성 가정은 기본적인 가사 지식이 부족하고, 자녀들은 학교중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만큼 특별한 교육과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제17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지난 31일 여수박람회장내 한국관에서 열렸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유운근 국회의원, 김홍석 여수시장과 해양소년단원들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계와 만난 여수의 바다'... 바다의 날 행사 다채

### 해양발전 유공자 포상...전남도 '문화의 날' 행사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바다의 날 행사와 전남도 문화의 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제17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날 31일 박람회장 한국관 다목적홀에서 '우리의 바다, 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 관계자와 해양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발전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지난해 12월

남극 로스해(ROSS SEA)에서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무사히 구조한 김현을 ㈜STX마린서비스 채빙선 아라온호 선장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 여수 웅천 해변공원에서는 여수 박람회와 연계해 해양레저 스포츠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행사가 열렸다. 전남도는 바다의 날을 '전남도 문화의 날'로 정하고 도립국악단의 풍류 음악 속의 풍요로운 바다'라는 주제로 천막극장에서 품격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정필수기자 bungy@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의 협주곡 '신모듬'과 부채를 퍼고 접는 꽃부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색조와 화려한 춤사위를 연출하는 '부채춤'이 펼쳐졌다. 이어 마당놀이 창극 '수궁가', 무용수들의 소고춤과 사물놀이팀의 웅장한 타고 소리가 어우러지는 종합가무극 '신명의 타고'가 놀이관을 뜨겁게 달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예술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줄 더 없이 좋은 기회"라며 "케이팝(K-Pop)과 함께 미래 블루오션인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



### 남해안 3개시도 협의회

지난 31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남해안관광 공동 실현을 위한 3개 시·도 협력회의'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3개 시·도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

## 농협 노조, 구조개편 약정 반발 총파업 결의

농협 노동조합이 정부의 농협 사업 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지난 30일 평의 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전체 조합원 1만5615명 가운데 1만3988명(96.1%)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현재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교섭중이어서 결렬될 경우 파업시기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의는 지난 29일 농협과 정부가 체결한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를 추진

하며 부채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6조원은 농협이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6조원을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안은 계속 바뀌어 결국 1조원을 현물 출자하고, 4조원을 농협 금융채권으로 충당하되 채권에 대한 이자(4%)를 5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정부 지원(연이자 1600억원)을 받는 대신 5년간 ▲독립사업 부채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조합지원사업 개선 및 추진 농협의 전

국 농산물 50% 이상 판매 등 5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노조 주재법 부장은 "정부가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을 받은 회사에 해야 할 요구를 농협에 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인력 구조조정, 법인 합병 등 악감, 자회사 매각 등을 요구,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 "사측 교섭과 정치적 압박을 통해 정부의 약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만 과태료 20만원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증진을 개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등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연환뉴스

##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 농업용수 30억 부족

### 농진청 "수자원 확보 원천기술 개발 시급"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지난해부터 필요수량보다 30억 부족해 대체 수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블루월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점점 줄어 식량 부족 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5개 국가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가 경고한 바 있다.

국토 곳곳에 큰 강이 흐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봄 가뭄 등으로 2009년 태백시와 서남해안 도서 지방에서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다. 2010년에는 강원도 고령지 가뭄으로 배추 값이 폭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유일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꼽았다. 2011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 179억 가운데 30억이 부족할 것

로 예측했다. '21세기 블루월드'로 불리는 물을 확보하려면 해당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물 절감기술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산학연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농진청이 제안했다. 쓰고 버린 물의 재활용, 빗물, 바닷물 등 대체 수자원의 다양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현대화와 정밀관개를 위한 첨단 시설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연환뉴스

### 2012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 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으로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젝트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전형일정	2012.07.03 (화) 10:00 ~
합격자 발표	2012.07.30 (월) 15: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 / 기계공학 / 산업공학 / 재료공학 / 전기전자컴퓨터공학
  - 토목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농업개발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gi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9@hanmail.net

###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